



보험감독위원회, 보험사기 방지 강화 규정 마련

왕양비 연구원

■ 최근 중국 보험감독위원회가 보험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보험사기 급증과 범죄수단 다양화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기 방지 강화 방안’ 및 ‘보험사기 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및 범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예정임.

- 2009년 말 기준 중국의 보험밀도가 121달러로 세계 평균수준인 595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보험침투율도 3.4%로 세계 평균의 1/2 수준에 그쳤으나, 보험밀도 59달러, 보험침투율 2.7%였던 2005년에 비해 중국의 보험시장은 크게 성장함.
- 이러한 급성장에 따라 가짜 교통사고, 가짜 입원, 살인 등의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으로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보험을 모집하거나 가짜 보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 동 보험사기 방지 강화 방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와 보험범죄가 명확히 정의되며, 명의도용 등을 통한 보험사기와 보험상품의 불법 경영, 부실 모집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 될 예정임.
- 보험감독위원회는 동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보험사기 방지 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실시할 계획임.

■ 보험감독당국은 동 개정안을 통해 보험협회에 보험사기 방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여러 환경적 여건의 미비로 보험사기 방지 협력체계 구축에는 장기간의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의 보험사기 방지체계는 보험회사, 보험중개회사, 보험대리회사, 산업공단, 연구조직, 감독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 조직들이 여전히 통일된 전략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보험사기에 대한 공동대응이나 정보의 공유가 미진한 상황임.
- 동 개정안은 보험사기 방지 공동이용 정보시스템 설립, 관련 기관과 회사 간의 정기모임 개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구조가 완전하지 않고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중국 재정망 8/3 등)